

범PD계 학생운동 쪽수를 대중매체로 알아보자 jpg.

○ ○

범 PD계(보통 범PD하면 노연도 붙임)는 로봉이들 모두가 알다시피 쪽수가 적다. 그리고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바깥을 나서지 않는 로봉이들은 만나보지 않은 단체들이 많다(예시 행진, 불키, 사진연, 노해투 등) 근데 노사과연이나 노정협, 청년사회주의자,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같은건 단일 집회를 연적이 없거나 내가 본적이 없다..(이 글은 100% 주관적이기에)

하지만 이들이 선전전이나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중매체에 나오는 숫자로 대충 어느정도수준인지 알 수 있다.

아래 적어놓은건 장작위키 피셜이나 개인의 사건이 잔뜩 들어갔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1. 전국학생행진



이건 2017년 전야제, 행진이다.



먼저 전국학생행진이다. 행진은 현재 구좌파 계독PD의 정통으로 불리는 조직 중에 가장 오래되고 대장정과 전학련까지 이어가는 오랜 역사를 가졌다. 현재는 대부분 동일조직의 노동조합정과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 '사회진보연대'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도 PD계의 최대정파를 꼽자면 한두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두 사진은 각각 2017년과 2019년의 4.30 노동절 전야제인데, 수백여명이 모인걸 알 수 있다. 노동절 전야제는 행진 '만'의 동원력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집회중 하나인데, 이 행사 자체가 행진이 기획하고 전국의 행진계열 학회, 동아리가 이날 서울로 결집하기 때문이다. 타 조직 (특히 변혁당이 여는 430 전야제)들도 노동절 전야제를 하고 가끔은 PD계 정파 모두가 통합으로 열기도 하는데, 변혁당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17년과 19년에는 행진이 단독으로 열었다. 대부분 행진 계열이 참가했다고 볼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일설에는 4-5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한다. 나도 가봤는데 지네끼리 톨톨 뭉쳐있어서 말걸기도 힘들고... 쉬이벌.... 인싸혁명가들....

애내의 본체가 사회진보연대라서 거쪽이 주관하는 지역 투쟁이나 빈민활동들도 자주 참가해서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노조조끼나 팻말을 두른 '학생'이 자주보이는거같다.

2.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를 '범PD'로 분류한다면 이들도 한 쪽수를 한다. '그 조국'이 사노맹으로 박살나는 동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령을 받고 만들어진 ISSK부터 시작해서 여러 국보법 해산을 거쳐 2000년대 초반부터 안정세에 접어든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다함께'가 모태인 친구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단독으로 주관한 집회를 찾기가 어려워서 폐북을 뒤지다 이 두개를 가져왔다. 이 사진은 김용균 동지의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연 노동자연대 주관의 긴급강연회에 모인 숫자인데, 모멘텀과 같이 열었다고 한다. 이들이 하는 주요 행사들이 노동자연대 '주관'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대부분 다른 조직들과 연대해서 한거라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어도 쪽수가 꽤 되는것을 알 수 있다. 430 전야제는 행진쪽으로 가기도, 변혁당쪽으로 가기도 한듯 하다. 항상 달라지는듯.



알다시피 이들의 주요한 결집행사는 뭐니뭐니해도 '맑시즘'이다. 근데 이것도 이들 주로 열지만 남한 내 대부분의 좌파단체들이 참가를 해서 확실한 숫자는 알기 힘든 사진.. 하지만 학생그룹 회원들 얘기 들으면 전국에 수백~천 미만의 회원은 있는거 같다. 글쓰고 있는 방구석 로봉이인 나도 기본적인 있다. 집회때 과잠입고 신문을 팔고있다면 백타 애대들이다. ㄹㅇ 진짜로 애대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비율이 압도적이다.

3. 정의당 청년당원그룹 '모멘텀'



로봉이들중에도 몇몇이 섞여있는 '모멘텀'이다. 애내도 단독주관으로 여는 행사가 별로 없던데 19년에 전태일기념관에서 청년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애내도 꼭 차보이는 하지만 위의 둘보다는 쪽수가 약간 작아보이는 느낌이다. 사실 위 둘이 건설된지 10~20년이 되어가는 반면 애내는 (꺼무피셜) 19년 4월에 만들어진 애들이라 비교하기가 뭣할수도 있다. 정의당이 '사회모스'당하면서 당내의 맑스주의 좌파들이 빠져서 만들었다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애내는 전국의 노학연대단체에 골고루 퍼져있는데, 동아리랑 주도단체들 합치면 2~300명정도 수준은 되는거 같다. 홍콩 사태 때 홍콩의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이랑 같이 서울권 대학교서 각각 10~30명씩 동시다발적으로 데모한거 보면 서울에만 모여있는걸수도 있다.



애네 특징은 집회때마다 정의당이 아니라 무슨 일본 중핵파마냥 흰 안전모에 붉은 띠를 둘고 모여맴긴다는 것이다. 홍콩이랑 연대 점거때 본적이 있다. 흰 띠배기에 붉은 띠를 두르고 모여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인싸새끼들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모멘텀이라고 의심해볼 만 하다.

4. 변혁적 현장실천 사회주의 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노동절 430전야제로 민주당사 앞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는 애네 넷중에 가장 빨강다. 가입조건도 까다롭다고 들었다(친구가 가입하려다가 못했다함) 항상 집회갈때마다 붉은 깃발이 참 이쁜 단체이지만 위 셋보단 쪽수가 한참 딸린다. 사노맹부터 노계추, 노계투를 거쳐 만들어졌다는데 내부에도 각자 정파가 있는거같다. (대전 변혁당 학위랑 서울 변혁당 학위가 사이가 안좋다는 썰이 있다.) 하튼 내가 설명할건 서울서 본 변혁당이다. 이들은 전국학생행진이랑 트리플이 있었는지 전야제를 따로 연다, 집회 연인원은 3~40명 수준이라고 한다. 맑음, 사회과학학회나 서울대, 동대, 이대 단과대에 가끔 튀어나온다. 이상하게 비니를 쓰거나 특이한 색으로 염색한 사람들이 많아보인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가 연 청년 노동자 컨퍼런스라던데 숫자는 적어보인다.

5. 알바노조-청년좌파(너머)-기본소득당



이상하게 '기본소득당' 이후 집회가 사진이 없다. 단독집회가 아니라 대부분 정치개혁공동운동쪽 집회여서 쪽수를 알기 어렵다. 흔히 SP(사회당계)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은 430~메이데이를 '알바데이'라고 부르고 따로 단위집회를 열었다. 알바노조와 노동당이 비선 문제로 분화되기 이전 이들은 100여명을 데리고 주요 맥도날드 지점, 혹은 알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현재도 이쪽은 현재 청년인 운동권정파로써는 유일하게 정당을 운영할 수 있을 수준의 쪽수를 유지하는데, SP자체가 분화가 적어 청년좌파-알바연대노조-사회당-기소당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계보로 계속 뭉쳐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당 계파분열사태 이후 이 '알바데이 전야제' 행사는 수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수준으로 작아졌지만, 기본소득당 자체의 청년 조직세는 커졌다.



이들에게 이제 달력 행사로 존재하는 집결 집회는 이제 '세계기본소득행진의 날'이다 우리미래, 기본소득당, 청년좌파, 알바노조 등이 중심이 되며, 사진 외에도 약 100~200여명이 행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청년은 아니다. 이들은 위에 있는 네 단체와 조금 세계관이 다르기도 하고 거의 같은 PD라고 보기 힘들게 분화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SP가 아닌 DP가 되어버렸다.

6. 쪽수도 적은데 다 같이 연대하면 안됨?

물론 하긴한다.



노연+변혁당+행진+모멘텀이 서로 그리 사이가 좋은 조직들은 아니지만 작년 10~11월경부터 뭔갈 자꾸 같이 하기 시작했다. 원래 '노동절'에만 전야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최초로 '전노대'에 전야제를 만들고 네 개의 PD주요 단위들이 공동주최를 했다. 보다시피 위에 다른 사진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보인다. 아까 얘기했듯이 알바노조나 SP계는 2010년대 이후로 자기들만의 행사를 따로 해서 그런지 없다.



(과잠입고 신문캡처 등+빨건띠에 흰 작업모+비니, 거의 어디 소속들인지 광고하고있다.)

홍콩 항쟁때도 네 단체가 연대해서 집회를 열었다. 근데 행진과 기본소득당은 '전국학생행진', '기본소득당'단위로는 이름이 안보이는데 회원들은 참가했다. 공식연대입장이 아니었을수도. 확실히 변혁+노연+모멘텀은 동참했다.

11~12월경에 애내가 조금씩 모이기도 하고, 서울권 통합 노학연대 평의회도 건설하고 해서 뭔가 이번 430 노동절전야제는 크게 열릴거같았는데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가고 야로나가 찾아왔다.

그리고 모두 새내기 모집에 망했다고 한다.